

그림에게 말 걸기 - 2

- 정물화, 물건에 깃든 마음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물건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법이라
버려진 걸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란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주워온 때 문은 봉제 인형을 보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물건에 마음이 들어있는다?’ 어딘가 주술적인 말에 화들짝 놀랐지만 그래도 나는 봉제 인형을 버리지 않았다. 잘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가지고 다녔다. 아이러니하게도 인형을 주운 그 놀이터에서 봉제 인형을 잃어버린 후, 친한 친구가 사라진 것처럼 한참을 운 기억이 있다. 누구나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 한둘쯤은 있을 것이다. 아기 때 뱃던 이불이나 생일 선물로 받은 운동화, 혹은 엄마가 짜준 목도리 같은 것들.

물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인간의 삶에 관여해왔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이나 마음이 깃든 무엇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명품백처럼 나를 과시하기 위한 액세서리가 되기도 한다. 반지나 꽃다발처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은 그 특징으로 인해 회화의 영역으로 당당히 들어와 정물화라는 장르가 되었다. 정물화는 그 후 오랫동안 화가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역사학자에게는 당대의 풍속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됐고 아마추어 화가에게는 자신의 데생 실력을 연습하는 소재가 되기도 했다. 잘 그린 정물화는 그 자체로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정물화(Still Life)는 네덜란드어로 죽은 자연을 뜻하는 ‘Still-Leven’에서 나왔다. 정물화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정물화가 사전적 의미에 걸맞은 건 아니

다. 어떤 그림은 파리 같은 곤충이나 살아있는 고양이를 그려 넣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디어아트’의 모습으로 움직임이 있는 정물까지 등장한다.

얼핏 ‘물건을 그린다’는 건 뻔해 보이지만 정물화는 다른 미술 장르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바로 정물화를 통해 시대별로 물건에 깃든 인간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물화는 물건에 대한 인간의 삶이나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샷과 허무 사이

정물화의 역사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본격화된다. 정물화가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있었던



빌렘 칼프, 성 세바스티아누스 군사 길드의 별잔과 가제, 술잔이 있는 정물(1653), 유화 / 출처 : 런던 내셔널 갤러리

것은 해상무역으로 시민계급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역사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유해진 네덜란드인은 자신이 소유한 근사한 물건을 드러내고 싶었고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다. 마치 행복한 순간을 박제하고 싶은 ‘인증샷’의 욕망처럼. 당시 정물화가 유행한 연유는 종교화가 금지되고, 새로운 미술 소비층이 등장했던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인증샷의 욕망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물화에는 귀한 물건들을 사실적인 질감으로 표현한 특징이 나타난다.

재미있게도 당시 네덜란드는 자신의 부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종교전쟁 이후 네덜란드가 받아들인 칼뱅교는 구교의 화려함을 비판하고 검소함을 강조해 왔다. 이런 종교적 상황에서 화려한 물건이나 음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은 부러움과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었다. 자랑은 하고 싶는데 내놓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상황. 그래서 바니타스(인생무상)의 정신을 담은 정물화가 출현한다. 비싼 물건들 사이로 물이 조금뿐인 유리병을 그리거나 해골을 그려 삶의 허무와 죽음의 의미를 집어넣었다. 이것을 과시욕과 종교적 금욕주의 사이의 절충 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깨달음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윤리적 우위에서 비롯된 또 다른 욕망으로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세속적 욕망과 종교적 엄숙함이 깃든 17세기 정물화는 18세기 프랑스에 이르러 샤르댕(Jean-Baptiste-Siméon Chardin)에 의해 다른 마음이 들어앉게 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 물이 가득 차 있는 유리컵과 그 옆으로 투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주전자.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아래 세 통의 마늘이 자유롭게 놓여 있다. 없는 살림이지만 조용하고 소박한 당시 농부의 삶을 엿보는 느낌이다. 사랑이 가



장 시메옹 샤르댕, 물잔과 주전자(1760), 유화 / 출처 : 카네기 아트뮤지엄

득한 엄마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아빠,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의 알레고리로도 읽을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는 로코코뿐만 아니라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였으며 이 시기에 유행한 예술 양식들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중에서도 로코코 미술은 화려하고 장식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귀족적이었다. 그런데 샤르댕은 로코코 미술의 귀족적인 풍속보다 서민의 삶을 그리고 싶어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주류에서 벗어난 정물을 과감하게 그림의 소재로 삼는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의 기교를 뽐내는 사실주의적인 그림과 반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정물화를 그린다. 네덜란드의 정물화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샤르댕의 정물화에 나타나는 물건의 재질과 느낌은 탁월하다. 게다가 그의 정물화에는 어떤 정서가 들어 있어서 그 물건을 사용한 서민의 삶을 유추하게 만든다. 가난한 민중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시선에서 당시 시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지 30여 년이 흐른 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절대왕정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혁명도 잠시 그 이후 나폴레옹의 집권과 끊임없는 전쟁, 소요가 뒤엉킨 19세기가 도래한다. 샤르댕은 18세기에 서서히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는 민중의 잠재성을 감지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의 정물화에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는 듯하다.

당신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나요?

19세기 정물화는 폴 세잔(Paul Cezanne)을 통해 완성된다. 그로 인해 비로소 정물화의 소재는 그 자체로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 이제 정물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액세서리도, 서민의 삶을 은유하는 메타포의 역할에서 벗어난다. 세잔은 말 그대로 사과라는 그 물건에 집중한다.

“ 나는 순간의 사과가 아니라,
진짜 사과를 그리고 싶다. - 폴 세잔 ”



폴 세잔,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1893), 유화 / 출처: 위키 백과

진짜 사과. 만약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냐고 당신에게 물으면 ‘과일’, ‘빨간색’, ‘사과의 맛’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세잔이 생각한 진짜 사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물건의 사전적 정의나 속성을 배제하고 마지막에 오롯이 남는 것을 묻는다. 그것은 바로 회화에서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인 형태와 색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형태와 색에 집중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가 형상화한 사과가 과연 사과의 본질이나 진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

“ 미술은 개인적인 통각이며,
자신이 이해한 것을 그림에 구성하여
그려 넣을 수 있어야 한다. - 폴 세잔 ”

세잔이 추구한 것은 사과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지각의 재구성이었다. 우리가 사과하면 떠올리는 지각의 관념을 벗어 던지고 생전 처음 사과를 본 것처럼 새롭게 지각한 것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과한 점을 그리기 위해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렸다는 일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잔의 그림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을 함께 감상해 보자. 언뜻 보기엔 평범한 정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과의 위치가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 시점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은근한 다시점(多視點) 때문인지 그림은 비현실적인 오묘함을 준다. 형태와 색을 생각하며 대상 자체에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 사과의 둥근 형태는 남아있지만, 윤곽선 안쪽으로 색을 칠하는 일반적인 붓질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고민으로 중첩된 색과 단순화된 형태는 관람자로 하여금 정밀화보다 더 그림을 집중하게 만든다. 짙은 그림자를 가진 흰 천은 사과의 아우라를 증대시킨다. 바구니는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기울어짐을 보이지만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림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온전히 세잔만의 눈으로 그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대상 자체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결과 그의 그림은 20세기 추상화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점과 관념을 낳게 된다. 세잔의 사과에는 지각과 의식 등의 다양한 인간 정신이 깃들게 된 셈이다.

이 정물은 몇 번째 판본인가요?

“당신이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그것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릴까 두렵다. - 앤디 워홀”



앤디 워홀, 캠벨 수프 깡통 19센트(1962), 실크스크린
/ 출처 : 위키 아트

마치 세잔을 두고 하는 말 같다. 20세기에 들어 정물화의 양상은 크게 변모하는데, 세잔이 물건 본연에 집중하면서 지각을 재구성했다면 워홀은 자본주의를 드러내는 기호로 정물화를 이용했다. 워홀의 정물화에는 자본주의의 특징인 대량생산된 상품이 등장한다. 그는 대중적으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캠벨 수프나 코카콜라와 같은 상품을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냈다. 작품의 번호가 몇 번째든 품질은 같다. 그는 작품을 통해 소비 자본주의의 속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생산 방식마저도 대량생산을 흉내 냄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을 재현한다. 이로써 앤디 워홀은 ‘당신이 훔쳐 달아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술’인 그의 예술론을 완성한다. 그에게 물건이란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고 그래서 동시에 기호가 된다. 워홀의 정물 속에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혹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

물건에 깃든 마음

앤디 워홀 이후, 오늘날까지의 정물화는 하나의 갈래나 관념을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전통적인 정물화부터 자본주의를 고발하는 정물화 그리고 움직이는 정물을 통해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작업까지, 현대 미술의 다양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앤디 워홀, 3개의 코카콜라(1962), 실크 스크린
/ 출처 : 위키 아트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용도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타포로, 관념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거나 자본주의를 드러내는 기호까지, 물건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물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을까? 물론 하나의 잣대로 이 모든 걸 정의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물건에는 인간의 마음이 깃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건 간에. 🍻